

중심사 제석근로사업장 개소

중증장애인 일자리 UP 희망 UP

장애인 고용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지역사찰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나서 화제다.

무등산 중심사(주지 지장)는 11월 3일 광주 남구 송하동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장 제석근로사업장(원장 지원) 개소식을 열었다. 사업장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자승)이 광주 남구로부터 위탁 받아 중심사가 운영하게 됐다.

장애인 241만명 가운데 중증장애인

실업률은 16.6%로 비장애인에 비해 약 5배나 높다. 일반장애인 취업의 벽보다도 높은 중증장애인에겐 제석근로사업장 개소로써 자립심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석근로사업장은 단체급식소에서 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채소, 과일 등에 있는 흙, 먼지를 세척하고, 손질 및 가공하는 신선 편의식품 및 김치 생산 사업 등을

실시한다.

제석근로사업장은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126㎡ 대지 위에 사무·공장동을 설치하고, 30명의 완도 지역 중증장애인을 채용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생활동반만 아니라 바자회, 나눔이, 기초학습지도, 여가활동, 체육활동, 지역사회시설이용 등 재활프로그램도 제공받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치사를 대독한 중심사 주지 지장 스님은 "모든 이가 행복해야 나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이념을 실천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향후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광주지역 장애인 30~60명을 추가 고용하고, 2012년 120명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장 스님, 지원 스님, 보건복지부 최영현 장애인정책국장, 최영호 남구청장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062-675-188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장 스님(왼쪽 끝)과 행사 참가자들이 제석근로사업장 담당자로부터 내부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다.

회암사 네팔 만다라전

네팔 만다라의 진수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11월 25일까지 전남 구례 화암사(주지 종삼) 보제루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극락정토로 가는 영혼의 수레바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만다라 작품 및 불상을 통해 네팔 불교의 특색 있는 종교관을 엿볼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네팔 최고작가로 꼽히는 노루브라마 등이 그린 칼라치크라 만다라 35점과 네팔 장인들이 손으로 제작한 불상 30여점이 대중에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성보박물관 개관을 준비 중인 화암사가 대중과 소통하고자 마련된 문화행사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문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익산 청소년 '우리문화알기 도전 골든벨'

청소년은 우리 문화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전북파라미타협회 익산지회(총재 원행, 금산사 주지)는 10월 30일 익산 영등초등학교에서 '제6회 우리문화 알기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전북지역 청소년 230여 명이 도전한 우리문화알기 도전 골든벨은 우리말, 역사, 민속문화, 불교문화와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전북지역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미리 배워둔 30여 문항의 예상문제 중에

서 출제된 문제들을 예심을 거쳐 중등부 58명 고등부 60명이 풀며 자웅을 겨뤘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학생부 김유린양(남성여중 2)과 김태정(원광여고 3)이 끝까지 남아 골든벨을 울리고 전북교육감상을 수상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익산지회장 김영목 선생은 "민족문화와 전통을 이어 받아 바른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고 미래 희망인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아픔 나누고 희망 키워요'

희망세상 생명나눔 걷기대회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10월 30일 '제2회 희망세상 만들기 위한 생명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동래 지하철역에서 온천천을 경유하여 온천천 시민공원까지 약 4km에 이르는 걷기대회에는 1500여 명 환우와 가족, 장기기증 회원, 후원회원, 자원 봉사단과 기업 봉사단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를 전개하여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는 10월 30일 생명나눔 걷기대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우들에게 휠체어를 지원하고, 시민들과 함께 행사에 참가하도록 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G20 성공 기원 잇따라

'걷기 명상' '산사음악회' 등 형태 다양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진행한 걷기 명상은 종교를 초월해 부산지역 불교신도와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됐다.

부산 불교단체들이 G20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동북아 제2 허브공항 부산 가덕도 유치를 염원하는 기원 행사를 연이어 개최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는 10월 30일 부산학생교육문화관에서 부산 시민과 함께 제2회 걷기 대회 '명상 따라 걷는 부산 불교'를 열고, G20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부산시 최대 현안사업인 '동북아 제2허브공항 부산 가덕도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걷기대회는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과 수석 부회장 화산 스님(삼광

사 주지),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미룡사 회주), 설동근 신도회장 등이 참여했다. 걷기대회는 명상과 걷기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종교를 초월해 부산지역 불교신도와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화합과 어울림의 장이 됐다.

부산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3.4km구간을 걸으면서 3000여 사부대중이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제공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윤기혁 사무국장은 "종교를 초월해 전체 부산시민이 함께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기원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됐다"고 밝혔다.

천대종 삼광사(주지 류화산)는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남부권 국제 허브공항 가덕도 유치를 기원하는 가을 산사음악회를 10월 31일 삼광사에서 성료했다. '만남'을 주제로 진행된 산사음악회에는 경내 곳곳까지 채운 신도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종교인 한마음으로 화합다짐

아름다운 순례길 선포 1주년

개신교의 조직적인 불교 비방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4대 종교인들이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다짐했다.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4대 종교인들은 10월 30일 전북 완주 송광사에 모였다. 아름다운 순례길 선포 1주년을 자축해 마련된 행사는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리였다.

이날 종교인들은 '아름다운 순례길 선포 1주년'을 맞아 전

주 한옥마을을 출발해 완주 송광사까지 28km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이어 저녁에는 송광사 뜰에서 산사음악회를 즐겼다.

행사에 참석한 도영 스님과 개신교 박진구 목사, 가톨릭 이병호 전주교구장, 원불교 고원선 전북교구장 등 4대 종단 대표와 신도 등 2000여 명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종교인이 되자고 마음을 모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4대 종교인들이 10월 30일 전북 완주 송광사 산사음악회에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신행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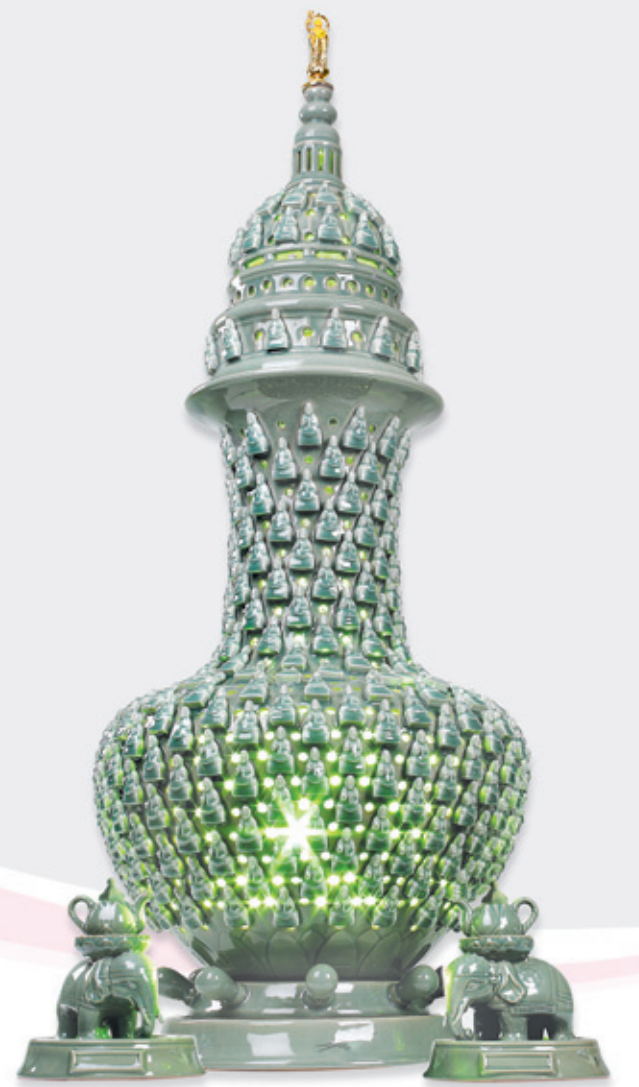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상감청자 특유의 기술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높이 : 120cm
-원통폭 : 45cm
-밑바닥폭 : 30cm
-무게 : 25kg

'참나'는 무엇인가?

부산 해운정사, 주아참선정진 대법회

경인년 한 해 마무리를 2달 여 앞두고 '참나'를 찾아 1000여 사부대중이 참된 자아를 찾아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웅장정진 법회는 승속·종교·남녀·노소를 초월해 참선에 뜻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매년 많은 이들이 해운정사를 찾고 있다.

10월 22~25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진행된 법회는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의 지도아래 진행됐다. 정진법회는 3박 4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하루 20시간 이상 참선정진 하게 된다. 이번 법회에서 진제 스님은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 나던

고" 화두를 내리고 법문을 하는 것 외에도, 장군 죽비를 들고 조는 사람이 경책하며 법회를 이끌었다.

진제 스님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진기간 동안 바른 참선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진제 스님은 법문에서 "번뇌의 근본은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데 있다. 참나를 바로 보는 수행을 통해 '나'라는 허세가 없어지면 늘 자비심이 발동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베푸는 마음이 생긴다. 참선(禪)을 통해 바른 눈과 지혜를 갖추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제1회 여산문학상 수상

〈사람의 향기, 삶의 깃발〉

제1회 여산문학상 수상에 양은순 시인이 선정됐다.

양은순 시인은 1979년 〈월간문학〉으로 등단 이후 30여 년 동안 줄곧 차(茶), 바다, 선(禪)이라는 시적 모티프를 일관성 있게 추구해왔다.

수상 시집인 〈사람의 향기, 삶의 깃발〉에서는 100편의 연작시로 선(禪)의 세계, 바다의 이미지로 원초적 생명의 원천, 인간의 삶의 본체를 규명하기 위해 선적인 통찰력의 명상시를 담았다.

운영위원장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은 "여산문학상은 부산·경남에서 불교문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